

제목 **Theme:** 삼위일체 **Trinity of God**

본문 **Scripture:** 마태복음 **Matthew 28:16-20** 절

16. 열 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But the eleven disciples proceeded to Galilee, to the mountain which Jesus had designated.**

17. 예수를 뵈옵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When they saw Him, they worshiped Him; but some were doubtful.**

18.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And Jesus came up and spoke to them, saying, "All authority has been given to Me in heaven and on earth**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at I commanded you; and lo,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age.**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모두 마치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 명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명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해야 할 소명을 주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예수님의 소명을 받은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들의 목적 있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기 전에 그 지역의 환경을 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 중에 몇 명이 성에 들어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모든 내용을 대제사장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11** 절).

대제사장들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빌라도 궁정에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보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마태복음 27:62** 절). 그 내용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 나리라” 한 것을 기억하니 그 무덤을 사흘까지 파수꾼을 보내어 지키도록 해 달라는 간청이었습니다(**마태복음 27:63-64** 절). 빌라도의 명령으로 파수꾼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특히 무거운 돌로 인봉했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아주 철저히 지켰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약속한 날 새벽 미명에 부활하시어 예수님은 안 계시고 텅 비어 있는 무덤만 있다는 것을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그렇게 보고한 파수꾼에게 많은 돈을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하며 총독과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12-14** 절). 그 파수꾼 즉 군병들은 뇌물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르친

내용대로 하였으니 지금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의 진실을 알지 못하고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16 절**). 이 내용은 악한 사단과 마귀들의 계략에 의하여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이방 민족 중에 파수꾼 즉 군병들까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단과 마귀에 의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했던 세상 지도자들 중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장로들과 파수꾼들까지 이용했는데,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는 나쁜 짓을 의논하고, 뇌물을 사용했으며, 거짓말을 하면서 세상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 악한 마귀들에게 속아 넘어 가지 않도록 구원해야 하는 일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소명을 주셨으며 그 소명은 지금 우리 기독교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소명을 설명하기 위하여 본문의 이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조금 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예수님을 찾아 나온 여인들에게 전하신 말은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하셨는데 그곳은 **요한복음 21 장 15 절부터**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소명을 주신 곳도 **갈릴리였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고, **16 절에 “내 양을 치라”, 17 절에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였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소명을 주신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시몬 베드로에게 주신 소명인데 그 이유는 시몬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이기 때문에 이 소명은 곧 교회에게 주신 소명인 것입니다(**마태복음 16:17-19 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시몬 베드로는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소명은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소명으로 주신 것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산에서 주신 것은 교회가 아니라 **11 명의 제자들에게** 주신 것으로 제자와 같은 모든 사역자 또는 성도들이 해야 할 내용입니다(**16 절**).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뵈옵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소명이 예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만큼 강하게 말씀하신다는 내용입니다(**17 절**). 그리고 **18 절에 “예수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편적으로 강조하실 때 쓰셨던 표현으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표현보다 더 강한 표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야 하는데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알게 해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에게 만이 모든 권세가 있고 제자들을 그 권세를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제자가 될 정도로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직접 소명으로 불러 세우신 제자들과 지금의 사역자 및 성도들에게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그랬듯이 지금 우리 사역자들과 상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성령을 받으면 제자들의 복음 사역이 시작되고 그 사역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 장 15 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소명으로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16 절 “예수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1 소명을 절대적인 명령입니다(요한복음 6:68 절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 요한복음 17:18 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나이다”)

2 소명은 곧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마가복음 16:15 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3 소명으로 부름을 받은 자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고린도후서 13:13 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둘째, 예수님의 소명을 받은 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18 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 예수님 만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로마서 13:1 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바라”)

2 예수님이 소명을 받은 자는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마태복음 7:29 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 마가복음 3:14-15 절 “예수님께서 열 둘을 제자로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쓸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3 예수님의 권세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갈라디아서 1:24 절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리라”)

셋째, 예수님의 소명을 받은 자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20 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1 예수님의 소명을 받은 자는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고린도전서 9:16 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 임이라” – 사도행전 8:35 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2 예수님의 소명을 받은 자는 예수님의 뜻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누가복음 9:6 절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3 예수님의 소명을 받아 사역하는 자들에게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베드로전서 1:12 절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 보기를 원하는 것인리”)